

제 21 회

전 국민속예술크경연대회

시 연 : 좌수영어방놀이

부산직할시대표 : 아미농악

수영농청놀이



일시 : 1980. 10. 29. ~ 31

장소 : 제주공설운동장

출연단체 : 사단법인 부산농악보존회

사단법인 수영고적민속보존회

부산직할시

人 事 말 씀



한라 靈山아래 오돌또기의 民謠가 메아리치는 三多의
섬 濟州에서 우리祖上들의 멋과 얼이 담긴 民俗의 향연이
베풀어 지게 되는데 對하니 眞心으로 祝賀를 드립니다

옛부터 韓國人은 自然에 歸依하고 아울러 自然을 人間世界에 끌어 들여 自然
과 同化해 살아오면서 年中 철철이 按配된 歲時風俗에 우리의 예지를 담아뒀
이 넘치는 많은 民俗들의 山河곳곳에 그 玲瓏한 모습들을 남겨 왔읍니다

이번 開催되는 이 民俗의 祭典은 傳統文化의 主体性 회복과 繼承發展의 次
元에서 뿐만아니라 우리의 生活이 現代化되고 産業化 됨에 따라 自然回復과
人間回復의 次元에서도 매우 값진 일이라고 生覺합니다

항도 釜山은 伽倻와 新羅 洛東江의 精氣가 토해낸 갯마을의 갯냄새가 어린
“아미농악”과 “농청놀이”를 선 보이고 74년도 大統領賞을 수상한 “좌수영어방
놀이”를 試演하게 되었읍니다

本 大會를 통하여 우리고장의 個性있는 傳統民俗을 감상하고 原形 保存에
힘씀이 바로 새 時代 새 歷史를 위한 主体性있는 民族文化 創發의 契機가
되리라 믿읍니다

이 뜻깊은 祭典을 위해 수고해 주신 關係官 여러분께 깊은 感謝를 드리며
아울러 傳統文化에 대한 鑑賞眼이 높아 지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가름 합니다

1980년 10월 일

부 산 직 할 시 장 손 재 식

左水營漁坊놀이示演

(1973. 10. 28 淸州에서 全國民俗競演大會에서 大統領賞 受賞)



1. 左水營漁坊놀이 由來

水營地方은 漁資源이 豊富하여 釜山地域에서는 第一먼저 漁業이 發達한[곳이다
漁業發達을 促進한 理由는 左水營 設置에 따른 水軍의 副食問題와 一朝有事時에 漁船의 軍船
化및 漁夫의 水軍化의 可能性에 있다고 할수 있다
顯宗 11年에 城이 完成되자 城의 前哨基地인 浦夷鎭에는 漁坊을 두고 그 漁坊에다 漁民을 集
結하여 漁業의 集團의 獎勵와 진흥을 爲하여 漁業 技術을 教導 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左水營漁坊인 것이다

2. 左水營漁坊 作業方法

左水營漁坊 에서는 沿岸 地曳綱이 爲主이며 때로는 통배 2隻이 魚群을 포위 投綱하여 魚獲하
는 것이다
以上과 같이 在來漁業에서 가장 지루하고 靛태를 느끼는 것은 大小의 줄을 끄는 일이며 그물
을 당기고 고기를 퍼 내리는 作業에는 適切한 規則과 速力과 技術이 隨伴되어야 한다
漁撈謠는 倦怠를 잊게하고 일손의 調和를 이루게하고 作業能率을 極大化 하는데 必要 不可缺
한 것이다

3. 漁坊놀이 科場

㉠ 내왕소리

줄을 끄우면서 지루하고 作業의 能率을 향상하기 爲하여 부르는 漁謠

㉡ 사리소리

바다에 그물을 치고 共同步調를 맞추기 爲하여 그물을 당기면서 부르는 漁謠

㉢ 가래소리

그물을 거두면서 그물안에는 고기를 가래로서 퍼 내리면서 부르는 漁謠

㉣ 칭칭소리

豐漁 임으로 作業에 從事한 全漁民이 기뻐서 부르는 소리다

4. 參加會員

朴南水 韓萬植 金奉泰 (重要無形文化財第62號 保有者)

外 當保存會員 (姓名省略)

아미농악 해설



농악은 우리 민족과 더불어 가장 오래된 민중음악으로 처음에는 제천의식에서 풍물을 치며 춤추고 노래 불러 신에게 제사 드리던 것이었다 또한 농경작업의 고달픔을 조금이라도 잊고 작업능률을 올리기 위해 풍물을 치면서 리듬에 맞추어 작업을 하였다 그러던 것이 차츰 오락성과 예술성이 가미되었다고 하겠다

농악은 각지방마다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특색이 있었으나 지금은 교통이 발달하여 지역간의 교류가 잦고 방송 매체를 통해 널리 퍼짐으로 해서 그 특성을 잃어가고 있다

부산 아미농악의 특징은 음력 정초에 가가호호 돌아가며 고사 지내고 복을 빌어주는 형태의 걸립 농악이 주류

로 이루고 있으며 삭모 돌리기 등의 기능도 우수하지만 버꾸놀음의 기능이 뛰어났다는 점을 들수 있으며 또 네 복이 일치되어 배지기로 대복을 안고 넘는 기교야 말로 더할 수 없는 경지에 이른다 타농악에 비해 박자가 느린 4박자로 굿거리장단이 많고 춤이 많이 삽입되어 있으며 상쇠와 부쇠 그리고 소고잡이들만 삭모를쓰고 나머지 징, 북, 장고잡이와 그밖의 놀이꾼들은 고깔을 쓰고 있다 부산 아미농악은 시내 서구 아미동을 중심으로 오래 전부터 놀이가 행해져 왔으나 일제하의 민족말살정책으로 고난을 겪어 오다가 1953년 정초에 정식으로 아미농악단이란 명칭으로 발족하여 전국적인 각종 경연대회에서 60여차례나 입상경력을 갖고 있으며 오늘에 이르러서는 개인기가 우수하여 한결 돋보이게 되었다고 할것ियो

- 이제 판굿의 순서만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 모듬굿 ② 길굿 ③ 인사굿 ④ 맞춤굿 ⑤ 문굿 ⑥ 오방진굿 ⑦ 판굿 ⑧ 호호굿 ⑨ 우물굿 ⑩ 다드래기 ⑪ 농사풀이 ⑫ 풍년굿 ⑬ 들버꾸 ⑭ 개인놀이 ⑮ 열두발삭모

인솔책임자 (이사장) 김만석

「예」 상쇠: 김한순 (중)쇠: 정우수 백종근 징: 엄정섭 김동순

대북: 정운화 임봉규 김수배 정만섭 장고: 조성현 김병기 조상용 이용석

들소고: 윤만수 허동찬 신석운 이송재 이병열 김재현 백진석 김해남

소고: 조갑용 김종대 김중기 이성근 정태수 권명수 김태덕 김종철

기수(농기): 정동찬 김갑실 김중욱 기수(영기): 김진태 최재현

양반: 유성복 포수: 이용환 하동: 김호성 색씨: 옥두대 호적: 정장동

1 모(집음합) (곳)	<p>홀어진 농악단원들을 집합시키기 위하여 상쇠가 단마치로 울리면 전원이 모이게 된다 전원이 다 모이면 2채 3채로 잇달아 넘어간다</p>	9 웃(점물호) (곳)	<p>오방진법이 끝난후 다시 전단원들을 점호하여 상쇠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인원의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놀이가 시작되면 상쇠가 가운데서 유도를 한다 3채 6채 12채 이다</p>
2 길(행진) (곳)	<p>길군악은 행진곳이다 행진곳에는 7채 가락으로서 농기를 선두로 상쇠이하 전원이 종대 행진을한다</p>	10 다(드래기) (곳)	<p>춤곡 도드리와 연관시켜 생각하기 쉬우나 그보다는 다르다 삼채로 시작하여 단모리 7채 가락으로 넘어가며 전체 단원들이 일사 불란 하게 일렬로 서서 몰아치는 가락이다</p>
3 인(에사절) (곳)	<p>출연하면 관중석에 대하여 인사를 하게 된다 인사곳에는 3채와 5채가 연속되며 이어서 8채 가락으로 넘어간다</p>	11 농(농사풀이) (곳)	<p>농사 풀이라고 하는것은 農者天下之大本이라는 농기를 앞세우고 농부의 노작과정을 나타내며 씨앗을 뿌리고 김을메고 베베고 타작하는 과정을 흥내내며 1. 2. 5채로 나타 낸다</p>
4 맞(정춤돈) (곳)	<p>맞춤곳은 인사가 끝난후 정돈을하는 것이다 맞춤곳 3채로 정돈이 끝나면 뒤로 돌고 원 방향으로 다시 돌며 훈련하는 과정에서 7채로 연결된다</p>	12 풍(년) (곳)	<p>농사를 짓고보니 시절은 호시절이요 곳 곳마다 풍년이라 농부들이 흥겨운 풍년가를 부르게되니 춤이 저절로 추어지는 듯한 장단으로 풍년곳에 사용되는 것이 덧베기 4채 8채 가락이다</p>
5 문(내문) (곳)	<p>문곳에는 여러가지 문에따라 다른데 예를들면 당산문 정문 관문이 있다 농악에서는 대회장문을 들어 서면서 문곳을 하게된다 2채와 3채로 이어지며 7채로 끝난다</p>	13 들(벽고) (놀음)	<p>들소고 라고하면 바로 버꾸 놀음이다 소고는 단순한 악기라지만 그묘한 기교는 춤을 위주로 한것이다 진정한 버꾸 놀음 즉 벽고 춤을 계승하여 소고 곳은 부산에서도 덧베기 장단가락 4채 8채 넘어간다</p>
6 오(잡귀) (진법)	<p>오방진법은 예로부터 마당 네군데를 東西南北으로 나누어 마당의 잡귀를 몰아내는 곳이다 마지막에는 中央으로 모여서 정을 세번 울리고 다시 풀며 나온다 4채 8채 10채로서 끝난다</p>	14 개(인) (놀이)	<p>상쇠로 부터 들소고 상모놀이 대북 장고 놀이등 다채로운 개인놀이가 시작된다 농악놀이의 표현 방법은 부산농악의 북춤 놀이와 설장고 놀이이며 개인의 특기인 묘기를 지연한다</p>
7 판(마당) (곳)	<p>판곳은 알기쉽게 이야기해서 마당곳이다 마당곳에는 다양한 가락이 나오게 된다 2채부터 4채 8채 12채순으로서 단체 기능을 판곳에서 발휘한다 마지막에는 덧베기 가락으로 끝난다</p>	15 열(두) (발상모)	<p>12발이 되는 긴 상모로 노는 것을 말한다 현재 각지방마다 12발 상모라고 하는 놀이가 있으나 사실상 12발에는 모자라며 이노래에서는 정확한 12발을 2. 4. 8. 돌리고 있다</p>
8 호(호리) (곳)	<p>흥겨로운 소리곳이다 2로채 시작하여 4채로 넘어가면 전 단원들이 "호호" 소리를 지르며 갈지자로 뛰면서 원을돈다 마지막 8채가 들리면 밭고 잡이는 반대로 돈다</p>		

水營農廳(놀이)

1. 目的 : 今般 第21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出演에 증하여 出演의 目的을 簡單하게 略述한다 아다실이 釜山直轄市는 現在 人口 300萬을 海아리는 大都市일뿐 아니라 特히 民俗의 高장인 水營은 옛부터 水使가 常住 하였고 數十年前에는 農業을 爲主하여 生計를 營爲 하였으나 現在는 完全 住居 地域都市로서 現在는 空地도 없을 뿐 아니라 農業을 할수 없으며 農業을 如何이 하는것 조차 모르는 時点에 있습니다 至今도 他市面 에서는 많이 보는 것이오나 水營農廳은 李朝 水營設營부터 官의 收奪과 衙前吏屬 土豪들의 搾取的인 小作制度에다 農耕人口는 적은데다 廣闊한 農耕面積을 가지고 있어서 勞力의 浪費와 能率을 向上하기 爲하여 當時 水軍組織을 모방한것이 水營南北 農廳이며 이는 自立 自助 協同하는 卽 새마을運動인 것입니다 水營農廳은 옛 祖上들이 代代로 이어 온것을 後孫들이 오늘에 되새겨 素朴하고 純潔한 民俗을 都市民에게 鼓吹시키고 底邊擴大 하는데 其 目的이 있는 것입니다

2. 農廳의 組織 및 制度

- ㉠ 農廳의 構成은 勞力 能力이있는 男女老少로 構成 組織한다
- ㉡ 農廳傘下의 執階는 執綱(代表) 行首(農事總監督) 文書잡이(庶務會計) 集講(農事計劃作成 및 講議) 野長(들판指導監督) 令角手(일명 멧갈 信號手)
- ㉢ 水營農廳은 男女가 언제나 같이 農場에 나가서 各分業의 일을 하는것이 特徵이다
- ㉣ 嚴格한 規律과 組織으로 農廳을 運營하였으며 規律에 違背되는 일이 있으면 곤장으로 懲治하였고 甚한 境遇에는 他處追放 處分을 하였다
- ㉤ 其後 南北農廳이 廢合하여 水營農廳으로서 祖上들이 繼承하고있다
- ㉥ 農廳을 象徴하는 表示로서 水營農廳旗 農者天下之大本이란 旗가 있다

3. 水營農謠(農謠)

水營農謠(풀노래)는 고된 疲勞와 倦怠를 잊게하고 일손을 調和하고 能率을 向上하는 手段이다 他處와 달리 굿이나 娛樂的인 面이 없는 純朴한 水營 特有的 農作農歌이다

풀노래는 以上과 같이 設明한바 如히 其代表的 풀노래를 紹介하면

㉠ 모찌기 노래

倦怠의 疲勞와 能率向上을 爲하여 主로 女子들로 構成하며 其中一名이 先唱하면 參加한 女子들이 後唱한다 (대개 五節을 부른다)

㉡ 모내기 노래

亦是 女子가 爲主이며 畚作業 整理는 男女가하며 女子는 水營特有的 목소리로 先唱하면 作業하는 女子들이 後唱한다 17節이 있으나 時間關係로 10節을 부른다

㉔ 김메기 노래

男子들로 構成되며 물논(畝)을 밭때 野長이 북을 치며 行首나 長老가 북에 맞추어 앞소리를 부르며 農軍들이 뒷소리를 받아 하면서 作業을 進行한다

㉕ 打作歌

亦是 男.女로 構成되며 打作時 能率 向上을 爲하여 부르는 水營特有的 打作歌 이다

4. 水營農廳 (풀노래)

水營農廳 出演者 構成 및 名單

演出 및 指揮 金 石 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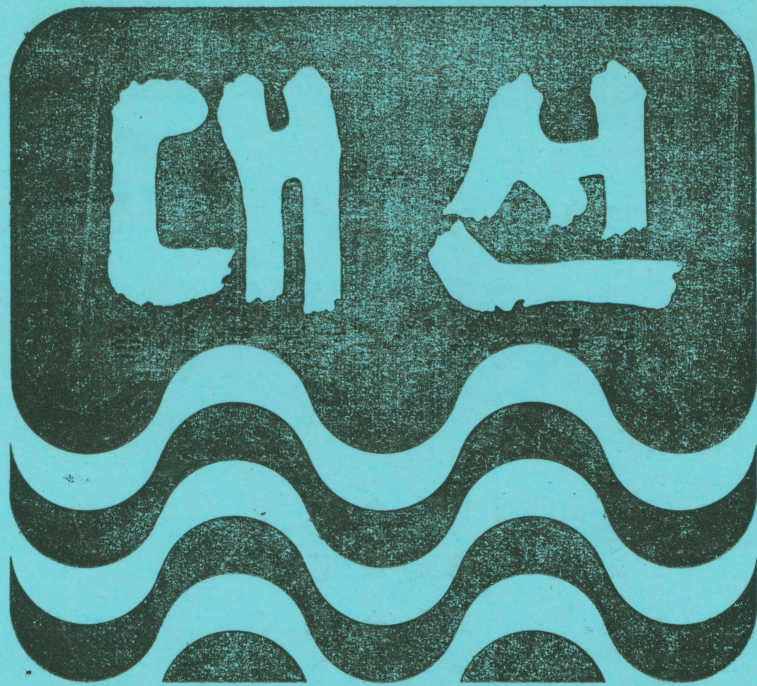
總務 趙 德 七

進行 金 基 泰

地方藝能保有者	金又根	都泰一	孫基柱	金基泰	尹文順
金又根	都泰一	孫基柱	金基泰	尹文順	朴南水
金達鳳	金容泰	韓萬植	金奉泰	趙福俊	文章守
丁潤晋	太德守	金玉泰	盧贊奎	趙德七	金命福
趙弘福	金泰春	李聖基	韓萬福	張在壽	吳成坤
田永鎮	韓潤哲	朴項基	王永順	宋末南	金南伊
裴仁守	朴英俊	金又植	崔小斗	金敬念	金貴連
朴貞順	金貞淑	趙末年	姜貞淑	崔福南	金洋子
李万福	洪讚粉	愼貞淑	李貞分	沈守義	徐영자
					朴三順



水營農廳 (놀이)



반세기의 연륜 속에서도 향토 부산의 발전을 뜨거운 가슴으로 호흡하며 향토에 대한 소명의식을 키워 온 대선주조주식회사—그전통은 곧 부산시민의 숨결이요 얼굴입니다
 내것을 찾고 우리것을 아끼는 향토문화의 창달 그리고 안락하고 잘사는 시민복지에 이르기까지 대선주조주식회사는 항상 부산시민과 함께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의 긍지를 더 높이는 °대 선 조 주°

대 선 주 조 주 식 회 사

TEL 84 5051 ~ 5



發 展

第21回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

左水營 漁坊놀이 (無形文化財第62號)

水營 農廳農謠 (地方無形文化財第2號)

社會가 渴求하는 參된奉仕

社團法人 國際 라이온스協會 309-B地區

釜山南區 라이온스클럽

會長 孔 基 敦